

# 三善?... “삼선잠뽕!” 하하하



수업은 언제나 '삼귀'로 시작된다.

## ■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교실에서

### 수업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한번이라도 싸우면 맞거나 때린 아이 모두 무조건 퇴학, 결석을 세 번해도 퇴학.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수업은 들을 입두도 못 내고 밖에서 밥을 서야 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쓰는 형식으로 4시간동안 치르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면 반드시 보충수업을 들어야 한다.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회의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108배, 사적 탐방 등 신행 생활도 필수조건이다. 그만큼 부모의 참여를 중요시하지만 간섭은 허용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것, 학부모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규칙이다. 또한 잘못을 하면 죽비를 맞아야 하는 규칙에 항의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퇴교 조치된다.

“대체 어떤 학교이기에 이렇게 까다롭지?” 하는 의구심이 절로 일어나는 이 학교는 부산 금화사(주지 대인) 신도회장인 김광호(53·법명 현묵) 법사가 설립해 교장을 맡고 있는 금화사 초등불교 학교다.

### 영화·성지순례·국악·체육 등 다양 108배, 사적 탐방 등 신행생활 필수 '달라졌다' '왕따 웬 말' 반응 대단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정식 학교도 아닌데 이리 까다로운 교칙을 가진 학교에 입학 희망자가 있을까 싶지만 예상을 뒤엎는다. 입학할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입학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희망자가 줄을 섰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 통사정을 하고 미리 서류를 접수시키는 학부모가 많다. 자매나 형제가 함께 다니는 경우는 물론이고, 멀리 양산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선발된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인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35명과 이향화 국악교사, 최미선, 정옥숙 전불가 교사, 한영순 다도 교사 그리고 교장인 김광호 법사 등 모두 40명이다.

3월 14일 일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휴일의 늦잠에 빠져있을 시간,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학생들은 종종결음을 치며 금화사로 들어오고 있었다.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입학의 행운을 누린 아이들이다. 교복인 생활한복을 입고 걸망을 짊어진 아이들은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고 곧바로 식당으로 모여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첫 시간은 찬불가 배우기. 금화사 천광합창단 정옥숙 단장의 지도로 발성이 시작됐다.

“> 아-아-아아아->”  
타잔처럼 목을 길게 빼고 생소리를 지르는 아이, 허리를 주욱 펴고 제법 목청을 다듬는 아이, 보는 것만으로도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엄한 교칙에도 아이들의 전진함을 숨길 수는 없다. 수업이 진행



35명의 학생들과 '불교 기초 교리' 수업중인 김광호 교장. 엄한 호랑이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쉬운 예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김광호 교장

김 교장이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를 시작한 것은 1997년. 95년 금화사 천자문 어린이 교실의 교사가 매주 바뀌는 것을 보고 교사를 자청한 것이 인연이 됐다.

700명의 군인을 휘어잡았던 육군소령 출신인 김 교장은 의욕만 앞서 140명의 어린이를 모집했다. 그러나 아이들 간식비, 강의실 임대료 등으로 사재(私財) 1천만원을 쏟아 붓고는 6개월 만에 손을 들었다. 잠담한 실패였다.

“잘 된다는 어린이 법회는 모조리 참관했고, 어린이 상담, 불교 교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 끝에 97년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 교장은 1999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받았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런 김 교장은 불교의 어린이 포교 현실

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불교의 미래는 없어요. 둔 안 된다고 어린이 법회 외면하는 스님들, 각성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 생활에 접목된 아이들은 다른 종교로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갑니다. 우리 금화사 아이들은 평생 불제자로 삼니다.”

신심 하나로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김 교장은 금화사 불교초등학교가 입주할 수 있는 어린이 포교 전용 건물 건립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실패후 어린이 법회 철저히 분석, 97년 개교 '돈 안된다' 인식 바뀌어 불교 미래 밝아



불교 강의 삼매경에 빠져버린 한 학생(사진 왼쪽). 다도 수업은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되는 동안 김 교장은 '호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아이들 등뒤를 어슬렁거리다 장난기가 발동하는 아이에게 어김없이 죽비를 친다. 따악! 요란한 죽비소리가 번쩍 아이들의 마음을 깨워 놓는다.

죽비를 맞은 후 웃음이 나올 듯 말 듯 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김 교장과 아이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된다. 모든 아이들의 범명을 외우고, 가정형편, 학교 생활, 습관, 특징까지 꿰뚫고 있으니 눈빛조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호랑이'라고 무서워하면서도 김 교장과 e-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시콜콜 학교 얘기를 털어놓는 아이들. 입학 후 3개월이 지나면, 학부모 사이에선 '아이들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정은향 보살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재덕, 재원 형제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일반 학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아이가 반장을 할 정도로 달라지기도 했다.

“잠재력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 엄마가 울면서 인사를 왔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성을 일깨워주면 저절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 '따악' 마음 깨우는 죽비소리 요란 '톡톡' 튀는 수업방식 머리에 '쑥쑥' 아낌없는 사랑 포교열정 인기 비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의 인기 비결은 바로 김 교장의 톡톡 튀는 수업방식과 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었다. 김 교장은 세 번 결석하면 퇴학이라는 엄격한 교칙을 만든 장본인이면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결코 수업을 빠지지 않는 교칙 준수자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은 알찬 교과 과정이다. 찬불가, 기초 불교예절 등의 기본 과정 외에도 다도, 통도사 참배, 영화 연구 관람, 체육대회, 국악교실 연수교육 등 여느 학교 교육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올해는 중국 성지 순례도 들어 있다. 이쯤 되고 보니 '학교에서도 해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출석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은 놀라울 것도 없다.

두 번째 시간은 김 교장의 불교교리 시간.

“삼학(三學)은 세 가지지를 배우는 것인데 그러면 삼악(三惡)은? 또 삼선(三善)은?”

“세 가지 나쁜 것과 세 가지 착한 것이요.” 대답이 끝나자 다시 질문이 이어진다.

“또 다른 삼선이 있는데 뭘지 아는 사람!”

아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김 교장은 재빨리 말했다.

“삼선자랑하고 삼선잠뽕!”

교실이 웃음바다가 된다. 삼학(三學)과 어린이교리를 배우는 시간, 김 교장의 알아듣기 쉬운 예화가 아이들의 두 귀를 쫓듯 세뇌놓는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불교 교리가 얘기로 술술 풀려 나왔다. 때론 웃어거머 때론 죽비 세례를 맞아 가며 아이들은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부산= 천미희 기자 · 사진= 박재원 기자



김광호 교장(사진 오른쪽)과 부인인 이향화 국악교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 반야심경반지

 <p>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18K Gold 폭 약 8mm</p> <p>판매가 352,000원</p>	 <p>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은92.5% 로듐도금 폭 약 8mm</p> <p>판매가 38,500원</p>	 <p>반야심경 전문270자가 내부에 각인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18K Gold 폭 약 8mm</p> <p>판매가 198,000원</p>
---	--	---

■ 주문 문의: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이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농업 : 053-12-113210 아동구